

호남지방에 분포하는 명승의 유형과 특징

이의한*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Beauty Spots in the Honam Region

Euihan Lee*

요약 : 최근 명승의 지정은 크게 늘어났지만 명승의 체계적인 분류와 효율적인 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자는 우리나라의 명승 가운데 호남지방에 분포하는 39곳의 명승을 새로운 시각에서 유형별로 분류·정리하고, 이들의 분포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11월 19일 명승 지정기준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문화재청은 명승을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복합명승으로 구분하였으나 상당수의 자연명승을 역사문화명승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독자적인 명승 분류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자연명승을 크게 7개 범주(산지지형, 하천지형, 해안지형, 카르스트지형, 화산지형, 조망경관, 동식물 서식지)로 중분류하고, 이를 다시 소지형 단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역사문화명승을 크게 4개 범주(전통 조경경관, 전통 산업경관, 전통 교통경관, 역사유적)로 중분류하고, 이를 다시 소분류하였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호남지방의 명승을 대분류한 결과 자연명승이 20곳, 역사문화명승이 15곳, 복합명승이 4곳으로 분류되었다. 이들을 중분류한 결과 자연명승은 산지지형이 6곳, 하천지형이 4곳, 해안지형이 4곳, 조망경관이 4곳, 화산지형이 2곳이었으며, 역사문화명승은 전통 조경경관이 10곳, 역사유적이 3곳, 전통 교통경관 2곳이었다. 필자가 제안한 새로운 명승 분류 기준은 명승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세밀한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호남지방의 명승을 소재지, 형성 시기, 명칭의 유래 근거, 관련 인물 및 그림, 지정 시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주요어 : 명승, 호남지방, 명승 지정기준, 명승 분류 기준,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복합명승

Abstract : Although the designation of beauty spots has increased greatly in recent years, the systematic classification and efficient management of beauty spots have not been well perform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writer classified and organized 39 beauty spots in the Honam region among Korea from a new viewpoint and examined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beauty spots. After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beauty spot designation criteria on November 19, 2021,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ivided beauty spots into natural beauty spots, historical & cultural beauty spots and complex beauty spots but made mistakes by improperly classifying many natural beauty spots into historical & cultural beauty spots. In view of these problems, this writer proposed a new beauty spot classification criteria. First, the natural beauty spots were largely classified into 7 categories(mountain landforms, river landforms, coastal landforms, karst landforms, volcanic landforms, view landscapes, animal and plant habitats) and subdivided them according to minimum landform units. And the historical & cultural beauty spots were largely classified into 4 categories(traditional artificial landscapes, traditional industrial landscapes, traditional traffic landscapes, historical remains) and subdivided them. According to the new criteria, beauty spots in the Honam region were each classified into 20 natural beauty spots, 15 historical & cultural beauty spots and 4 complex beauty spots. The subdivision of those beauty spots classified the natural beauty spots into 6 mountain landforms, 4 river landforms, 4 coastal landforms, 4 view landscapes, and 2 volcanic landforms; the historical & cultural beauty spots are divided into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uihan@kangwon.ac.kr)

10 traditional artificial landscapes, 3 historical remains and 2 traditional traffic landscapes. The new beauty spot classification criteria proposed by this writer should be reviewed in detail and modified as additional beauty spots are added. In addition, in this research, the beauty spots in the Honam region were examined in several aspects such as sites, formation periods, bases for the origins of the names, related persons and paintings and designation periods.

Key Words : beauty spots, Honam region, beauty spot designation criteria, beauty spot classification criteria, natural beauty spot, historical & cultural beauty spot, complex beauty spot

I. 서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 경관을 명승(名勝)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명승을 찾은 우리 선조들은 글이나 그림으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감상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명승은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이라는 형식미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의 장’으로서 사회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고, ‘지역의 대표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의미 경관’으로서 상징성을 지닌 문화재로 인식되고 있다(김학범, 2009; 신상섭, 2011).

우리나라의 명승은 시기를 기준으로 조선시대 이전의 명승인 전통 명승과 20세기 초 이후의 명승인 현대 명승으로 구분된다. 전통 명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시대의 명승은 그 위치와 경관적 의미가 여러 문헌과 구전, 주민들의 실전 등을 통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정치영 등, 2016). 현대 명승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 중요 문화재의 하나로 예술적·관상적(觀賞的) 측면에서 기념물이 될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9년 10월 명승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주요 연구로는 명승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다룬 이재근(2009)의 연구, 명승의 지정 상황과 정책 방향에 관해 논의한 김계식(2009)의 연구, 한국 명승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 이위수(2009)의 연구, 한국 명승의 현주소와 과제를 다룬 김학범의 연구 등이 있다. 그 후 김창규(2013)는 명승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다른 기념물과 분명히 구분되는 명승 개념의 독자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명승자원을 새롭게 확충하고, 명승자원의 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적 방안도 모색하였다.

지리학 분야의 명승 연구로는 전종한의 연구가 돋보

인다. 전종한(2013)은 세계유산의 측면에서 국가 유산인 ‘명승’의 가치 평가와 범주화 문제를 다루었고, 주요 현안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전종한(2014)은 후속 연구를 통해 명승을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라는 준 국제적 규모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고유 지역 문화경관으로 규정하고, 명승을 체험하고 향유한다는 것은 곧 정체성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의한(2019; 2022)은 우리나라의 명승 중 중부지방과 영남지방에 분포하는 70여 곳의 명승을 새로운 시각에서 유형별로 분류·정리하고, 이들의 분포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명승과 관련 연구로는 전통 명승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유영석 등(2013)의 연구와 좌표를 활용한 공간적 분석을 통해 명승과 구곡팔경을 살펴본 장은미·박경(2018)의 연구 등이 있다.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이 2022년 12월 20일 명승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31곳의 명승이 지정되었다. 강릉 명주 청학동 소금강이 1970년 명승으로 지정된 이래, 2000년까지 명승을 지정한 사례는 단 9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 이후 명승의 지정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는 131곳의 명승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명승의 체계적인 분류와 효율적인 관리는 지금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자는 우리나라의 명승 가운데 호남지방에 분포하는 39곳의 명승을 새로운 시각에서 유형별로 분류·정리하고, 이들의 지역적 분포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명승의 연구범위를 전국으로 넓혀 보다 객관적인 명승의 유형 분류 기준을 확립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아래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와 호남지방 명승의 지정 근거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호남지방 명승의 유형 분류 기준과 분류 상황을 살펴보고, 지형학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유

형 분류 기준을 제안하였다. 셋째, 호남지방의 명승을 소재지, 형성 시기, 명칭의 유래 근거, 관련 인물 및 그림, 지정 시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II. 호남지방 명승의 지정 근거 및 현황

현대 명승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재(文化財)는 자연적·인위적으로 형성된 세계적·국가적·민족적 유산으로서 학술적·역사적·경관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문화재라는 명칭은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은 문물(文物), 북한은 문화유물(文化遺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문화재청, 2003).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그 특성에 따라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기념물은 다시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으로 구분된다. 문화재청이 제시한 기념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적 - 사지·고적·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 포함층 등
사적지와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큰 것들

천연기념물 - 동물(각종 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
물(각종 자생지 포함), 광물, 동굴, 지질학
적·생물학적 생성물 및 자연현상으로서 학
술적 또는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들

명승 - 경승지로서 경관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들

명승은 지질학적·생물학적 생성물로 형성된 자연현상 이면서 빼어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갖춘 장소나 지역으로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자연의 기념물인 동시에 과학상·보존상·미관상 뚜렷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경승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명승은 경관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문화재청, 2003).

명승 지정기준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명확히 제시된 1964년 2월 이후, 명승 지정기준은 서서히 변화되어 왔으나 오랫동안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2007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명승 지정

기준은 큰 변화를 겪었다. 문화재청은 2007년 8월 명승 지정기준을 개정하여 명승을 크게 자연명승(自然名勝)과 역사문화명승(歷史文化名勝)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유형의 역사문화명승을 명승 지정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명승 지정기준의 전면적 개정은 명승의 구체적 유형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시도였으나 역사문화명승 범주에 자연명승이 포함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김대열, 2008; 이의한, 2019).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문화재청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명승 지정기준을 또 다시 대폭 개정하여, 과거 지정기준과 유형별 분류가 혼재되어 있던 것을 지정기준 제시 후 유형별 분류로 바꾸었다. 이와 함께 명승의 유형으로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복합명승(複合名勝)을 제안하였다. 또한 문화재의 서열화 논란을 야기했던 문화재 지정번호제가 폐지되면서 명승에 부여되었던 지정번호도 사라지게 되었다. 2021년 대폭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명승 지정기준과 유형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 2) 시대나 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 3)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나. 학술적 가치

- 1) 대상의 고유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각 구성요소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
- 2) 자연물·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는 것
- 3) 위치, 구성, 형식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진실한 것
- 4) 조경의 구성 원리와 유래, 발달 과정 등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

다. 경관적 가치

-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 2) 자연 속에 구현한 경관의 전통적 아름다움이 잘

남아있는 것

- 3) 정자·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바라볼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라.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자연명승: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연물

- 1) 산지, 하천, 습지, 해안지형
- 2) 저명한 서식지 및 군락지
- 3) 일출, 낙조 등 자연현상 및 경관 조망지점

나. 역사문화명승: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진 인문적 가치가 있는 인공물

- 1) 정원, 원림(園林) 등 인공경관
- 2)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마을, 옛길 등 생활·생업과 관련된 인공경관
- 3) 사찰, 경관, 서원, 정자 등 종교·교육·위락과 관련된 인공경관

다. 복합명승: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자연물

- 1) 명산, 바위, 동굴, 암벽, 계곡, 폭포, 용천(湧泉: 지하수가 지표로 분출된 곳), 동천(洞天: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 구곡(九曲) 등
- 2) 구비문화, 구전(口傳) 등과 같은 저명한 민간전승의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

2022년 12월 31일 현재 문화재청이 지정한 우리나라의 명승은 총 131곳이다. 이중 호남지방에 분포하는 명승은 39곳이다. 이를 지정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완도 정도리 구계등이 1972년, 여수 상백도와 하백도 일원이 1979년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03년 1곳, 2004년 1곳, 2007년 영광 법성진 숲쟁이 등 2곳, 2008년 광한루원 등 5곳, 2009년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등 9곳, 2011년 1곳, 2012년 1곳, 2013년 1곳, 2014년 1곳, 2017년 1곳, 2018년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등 2곳, 2019년 1곳, 2020년 부안 직소폭포 일원 등 2곳, 2021년 장흥 천관산 등 7곳이 명승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또

한 2022년에는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조선시대의 대표적 지리서(地理書)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수록된 호남지방의 명승을 분류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1530년 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동국여지승람』을 증수하여 편찬한 조선 전기의 관찬지리서(官撰地理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호남지방의 명승이 총 134곳 수록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호남지방의 명승은 산, 하천, 섬 등 자연사상(自然事象)이 25곳, 누정, 사찰, 역원, 공해·궁실, 나루·포구 등 인문사상(人文事象)이 109곳으로 인문사상이 자연사상에 비해 약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상은 누정 49곳, 사찰 31곳, 역원 16곳, 공해·궁실 6곳, 나루·포구 5곳 등으로 이들이 전체 인문사상의 98% 이상을 차지한다.

18세기 중반에 출간된 『여지도서』는 전국의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책으로 만든 조선 후기의 관찬지리서이다. 『여지도서』는 중앙 정부에서 총괄해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달리 각각의 군현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묶어서 편찬했기 때문에 군현에서 제출한 자료의 양적·질적 차이가 크고, 이에 따라 내용의 지역적 편차도 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를 직접 비교해 명승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거의 없고, 『여지도서』에 수록된 자료를 통해 명승의 지역적 분포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정치영 등, 2016).

『여지도서』에는 호남지방의 명승이 총 214곳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인문사상이 169곳으로 자연사상 45곳에 비해 약 3.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자연사상으로는 산, 계곡, 바위, 하천 등이 전체 자연사상의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문사상으로는 누정, 사찰, 역원, 사묘·사단, 공해·궁실, 나루·포구 등이 전체 인문사상의 94% 이상을 점하고 있다. 특히 누정은 81곳이 수록되어 있어 호남지방의 전체 명승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III. 새로운 명승 분류 기준의 개발 및 적용

명승의 지정과 관리는 그 가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승의 지정기준을 설정하고,

표 1. 조선시대의 대표적 지리서에 수록된 호남지방의 명승

분류	소분류	지리지		분류	소분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람	여지도서			신증동국 여지승람	여지도서
자연 사상	산	10	18	인문 사상	누정	49	81
	하천	8	5		사찰	31	43
	고개	1	2		역원	16	14
	바위	1	6		공해·공실	6	7
	못·호수	-	1		나무·포구	5	6
	섬	2	2		사묘·사단	-	8
	여울	-	1		마을·지역	2	1
	계곡	1	8		성곽	-	1
	샘	-	-		교량	-	2
	동굴	-	-		능묘	-	2
	숲·나무	-	-		관방·진	-	2
	바다·해변	1	1		길	-	-
	온천	1	1		학교	-	1
	기타	-	-		기타	-	1
계	25	45	계	109	169		

출처 : 정치영 등, 2016.

그에 따라 명승을 지정·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문화재청이 지정한 우리나라의 명승 총 131곳 중 자연명승으로 분류된 곳은 41곳, 역사문화명승으로 분류된 곳은 90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청의 명승 분류에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연명승이 역사문화명승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반대로 역사문화명승이 자연명승으로 잘못 분류된 사례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자연명승이 역사문화명승으로 뒤바뀐 경우에는 백령도 두무진(해식애), 설악산 토왕성폭포(폭포), 예천 회령포(감입곡류구간), 순천만(간석지), 한라산 백록담(화구) 등이 있고, 역사문화명승이 자연명승으로 둔갑한 사례로는 대관령 옛길(옛길), 충주 계림령로 하늘재(옛길·고개), 청송 주산지 일원(저수지),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유적)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명승이 잘못 분류된 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다.

명승의 유형 분류와 관련해 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문화재청이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대폭 개정하여 명승의 유형을 자연명승, 역사문

화명승, 복합명승으로 구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이러한 명승의 유형 분류 방식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2022년 12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우리나라의 명승 131개 중 복합명승으로 분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데, 이는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만 개정하였을 뿐 이를 업무에 적용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일련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독자적인 명승 분류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표 2). 이 기준은 필자가 지난 2019년과 2022년의 연구를 통해 제안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먼저 자연명승을 크게 7개 범주(산지지형, 하천지형, 해안지형, 카르스트지형, 화산지형, 조망경관, 동식물 서식지)로 중분류하고, 이를 다시 소지형(小地形) 단위로 분류하였다. 역사문화명승도 크게 4개 범주(전통 조경경관, 전통 산업경관, 전통 교통경관, 역사유적)로 중분류하고, 이를 다시 소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명승적 성격과 역사문화명승적 성격을 두루 갖추고 있고, 그 비중이 대등한 경우에는 복합명승으로 분류하였다. 물론 자연명승적 성격이나

표 2. 새로운 명승 분류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연명승	산지지형	침식분지(侵蝕盆地),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암석돔(dome), 토르(tor), 산지타포니(tafoni), 급애(急崖), 암괴원(岩塊源), 암괴류(岩塊流), 산지습지(山地濕地) 등
	하천지형	협곡(峽谷), 폭포(瀑布), 폭호(瀑壺), 소(沼), 포트홀(pothole), 기반암하상(基盤岩河床), 갑입곡류구간(嵌入曲流區間), 하식에(河蝕崖), 하식동(河蝕洞), 용천(湧泉), 하안단구(河岸段丘), 하중도(河中島), 하천습지(河川濕地), 호소성습지(湖沼性濕地) 등
	해안지형	파식대(波蝕臺), 씨스택(sea stack), 씨아치(sea arch), 해식에(海蝕崖), 해식동(海蝕洞), 해안타포니, 해안단구(海岸段丘), 간석지(干潟地), 염생습지(鹽生濕地), 모래해안, 자갈해안, 사취(砂嘴), 사주(砂洲), 석호(潟湖), 육계도(陸繫島), 해안사구(海岸砂丘), 사구습지(砂丘濕地) 등
	카르스트지형	용식와지(溶蝕窪地), 라피에(lapies), 석회동굴(石灰洞窟), 자연교(自然橋), 카르스트(karst) 용천 등
	화산지형	용암대지(熔岩臺地), 용암동굴(熔岩洞窟), 용암원정구(熔岩圓頂丘), 분석구(噴石丘), 응회환(凝灰環), 응회구(凝灰丘), 화구(火口), 칼데라(caldera), 마르(maar), 주상절리지형(柱狀節理地形) 등
	조망경관	산지경관(山地景觀), 하천경관(河川景觀), 해안경관(海岸景觀), 숲경관, 일출경관(日出景觀), 낙조경관(落照景觀) 등
	동식물 서식지	동물 서식지, 식물 서식지
역사문화명승	전통 조경경관	정자, 정원, 연못 등
	전통 산업경관	저수지, 경작지, 마을숲, 어업유적 등
	전통 교통경관	옛길, 나무, 교량, 포구 등
	역사유적	사찰, 기타 유적 등
복합명승	복합명승	복합명승

역사문화명승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어느 한 측면이 확연하게 우세한 경우는 복합명승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새로운 명승 분류 기준에 따라 호남지방의 명승을 분류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호남지방의 명승 39곳을 새로운 분류 기준에 따라 대분류하면 자연명승이 20곳, 역사문화명승이 15곳, 복합명승이 4곳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중분류하면 자연명승은 산지지형이 6곳, 하천지형이 4곳, 해안지형이 4곳, 조망경관이 4곳, 화산지형이 2곳으로 나뉘고, 역사문화명승은 전통 조경경관이 10곳, 역사유적이 3곳, 전통 교통경관이 2곳으로 나뉜다.

반면 문화재청은 호남지방의 명승을 자연명승 14곳, 역사문화명승 25곳으로 분류하였다. 자연명승에는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지리산 화엄사 일원, 두륜산 대흥사 일원 등 역사문화명승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곳이 여럿 포함되었고, 이들 명승을 소개하는 사진도 사찰 건물, 출입문, 다리, 탑, 비석, 부도 등 역사문화와 관련된 것이 대

부분이었다. 역사문화명승에는 완도 정도리 구계등, 여수 상백도와 하백도 일원, 진안 마이산,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등 누가 보아도 자연명승에 해당하는 곳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들 명승 중 진안 마이산과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은 국가지질공원의 지오사이트(geosite)이고,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은 세계지질공원의 지오사이트이다.

필자가 제안한 새로운 명승 분류 기준은 명승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보다 세밀한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역사문화명승은 최근 지정 확대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다양한 유형의 역사문화명승이 추가 지정되고 있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보다 역사문화명승의 지정 건수와 비중이 월등히 높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역사문화명승의 지정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이의한, 2019).

표 3. 호남지방의 명승 분류

명칭	지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자연명승	역사 및 문화명승	복합명승			
완도 정도리 구계등	전남	○			해안지형	자갈해안	
여수 상백도와 하백도 일원	전남	○			해안지형	해식애, 해식동, 씨스택	
진도의 바닷길	전남	○			조망경관	해안경관	
진안 마이산	전북	○			산지지형	암석덤, 산지타포니	국가지질공원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전북	○			해안지형	해식애, 파식대	국가지질공원
영광 법성진 숲쟁이	전남			○	복합명승	복합명승	
순천 초연정 원림	전남		○		전통 조경경관	정자	
광한루원	전북		○		전통 조경경관	정자	
보길도 윤선도 원림	전남		○		전통 조경경관	정원	
장성 백양사 백학봉	전남	○			산지지형	암석덤	
담양 소쇄원	전남		○		전통 조경경관	정원	
순천만	전남	○			해안지형	간석지	람사르습지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전북			○	복합명승	복합명승	국가지질공원
무주 구천동 일사대 일원	전북	○			하천지형	하식애	
무주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전북	○			하천지형	소(沼), 하식애	
담양 식영정 일원	전남		○		전통 조경경관	정자	
담양 명옥헌 원림	전남		○		전통 조경경관	정자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전남			○	복합명승	복합명승	
지리산 화엄사 일원	전남		○		역사유적	사찰	
조계산 송광사와 선암사 일원	전남		○		역사유적	사찰	
두륜산 대흥사 일원	전남		○		역사유적	사찰	
진도 윤림산방	전남		○		전통 조경경관	정원	
화순 임대정 원림	전남		○		전통 조경경관	정원	
광주 환벽당 일원	광주		○		전통 조경경관	정자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전남			○	복합명승	복합명승	
화순 적벽	전남	○			산지지형	급애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전북	○			조망경관	낙조경관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전남	○			화산지형	주상절리지형	세계지질공원
강진 백운동 원림	전남		○		전통 조경경관	정원	
부안 직소폭포 일원	전북	○			하천지형	폭포	국가지질공원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전남	○			조망경관	낙조경관	
장흥 천관산	전남	○			산지지형	토르	
고흥 지족도 금강죽봉	전남	○			화산지형	주상절리지형	
완주 위봉폭포 일원	전북	○			하천지형	폭포	
부안 우금바위 일원	전북	○			산지지형	암석덤	
고창 병바위 일원	전북	○			산지지형	급애	
삼남대로 갈재	전남		○		전통 교통경관	옛길	
삼남대로 누릿재	전남		○		전통 교통경관	옛길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전남	○			조망경관	일출경관	

IV. 호남지방 명승의 분포와 특징

호남지방의 명승은 소재지, 형성 시기, 명칭의 유래 근거, 주요 관련 인물 및 그림, 지정 시기 등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해볼 수 있다(표 4). 먼저 명승 소재지의 분포를

보면 전남 순천시 3곳, 전남 담양군 3곳, 전남 화순군 3곳, 전북 부안군 3곳, 전남 완도군 2곳, 전남 여수시 2곳, 전남 진도군 2곳, 전남 해남군 2곳, 전남 강진군 2곳, 전남 구례군 2곳, 전남 장성군 2곳, 전북 고창군 2곳, 전북 무주군 2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호남지방의 명

표 4. 호남지방 명승의 분포와 특징

명칭	소재지 (시·군)	형성 시기	명칭 유래 근거	주요 관련 인물	관련 그림	지정 시기
완도 정도리 구계등	완도군		자갈밭이 9개의 계단(등)을 이룬 것 같음			1972
여수 상백도와 하백도 일원	여수시		섬이 온통 하얗게 보임			1979
진도의 바닷길	진도군			주한 프랑스 대사 피에르 랑디		2000
진안 마이산	진안군		산봉우리의 모양이 말의 귀와 비슷함			2003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부안군		중국의 지명			2004
영광 법성진 숲쟁이	영광군	1514년	숲으로 된 성(쟁이 즉, 재는 성을 의미)			2007
순천 초연정 원림	순천시	1836년	송병선이 명명	조진충, 조재호		2007
광한루원	남원시	1419년	정인지가 명명	황희, 정철, 신감		2008
보길도 윤선도 원림	완도군	17세기	윤선도를 기림	윤선도		2008
장성 백양사 백학봉	장성군		산봉우리의 모양이 학이 날개를 편 것 같음			2008
담양 소쇄원	담양군	16세기	송순이 명명	양산보		2008
순천만	순천시		여자만의 일부로 순천이라는 지역 명에서 비롯됨			2008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고창군		미륵불이 있는 도솔천궁(兜率天宮)			2009
무주 구천동 일사대 일원	무주군		송병선을 '동방일사(東方一士)'라고 부르며 기림	송병선		2009
무주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무주군		파회·송병선이 명명, 수심대·일지대사가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도를 깨침	송병선, 일지대사		2009
담양 식영정 일원	담양군	16세기	임억령이 명명	김성원, 임억령, 정철, 고경명	김성원의 '성산계류탁월도'	2009
담양 명옥헌 원림	담양군	17세기	물 흐르는 소리가 옥(玉)이 부딪히는 소리 같음	오이정		2009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해남군	749년	전설에서 소 울음소리가 아름다워 미(美)자를, 금인(金人)이 황금색을 띄어 황(黃)자를 택함	의조화상		2009
지리산 화엄사 일원	구례군	8세기	『화엄경』의 두 글자를 따서 명명	인도 승려 연기, 도선국사, 각성, 성능		2009
조계산 송광사와 선암사 일원	순천시	송광사·770년 선암사·875년	송광사·조계산의 옛 이름인 송광산 선암사·절 서쪽에 위치한 신선바위	혜린대사, 보조국사, 도선국사, 대각국사		2009

표 4. 호남지방 명승의 분포와 특징(계속)

명칭	소재지 (시·군)	형성 시기	명칭 유래 근거	주요 관련 인물	관련 그림	지정 시기
두륜산 대홍사 일원	해남군	5세기 또는 6세기	두륜산의 다른 이름인 대홍산	서산대사, 초의선사		2009
진도 윤림산방	진도군	1857년	중국 화가 예찬의 호 윤림(雲林)	허련, 허건		2011
화순 임대정 원림	화순군	16세기	송나라 시인 중극의 시구 '終朝臨水對廬山'	남언기, 민주현		2012
광주 환벽당 일원	광주 북구	16세기	푸르름이 고리를 두르듯 아름다움	김후, 김윤제, 정철, 송순	김성일의 '성산계류탁월도'	2013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구례군	544년	오산에서 수도한 4명의 고승(四聖)을 기림	연기조사, 의상대사, 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		2014
화순 적벽	화순군		최산두가 명명		전충효의 '석정척사유거도'	2017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군산시		억울하게 유배된 충신이 북쪽을 바라보며 입금을 그리워함			2018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널	화순군		지공너널-지공대사가 좌선수도하면서 법력으로 억만 개의 돌을 깎	김극기, 인도 승려 지공대사		2018
강진 백운동 원림	강진군	17세기	'백운암(白雲庵)이라는 사찰의 이름	이담로, 정약용, 초의선사, 이시현		2019
부안 직소폭포 일원	부안군		물줄기가 둥근 못으로 곧바로 떨어짐		강세황의 '우금암도' (직소폭포도 함께 그려짐)	2020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신안군		섬의 서쪽으로 뻗어 내린 고개 모양의 반도			2020
장흥 천관산	장흥군		기암괴석의 모습이 주옥으로 장식된 천자의 면류관 같음			2021
고흥 지족도 금강죽봉	고흥군		바위가 마치 왕대나무처럼 솟아 있음			2021
완주 위봉폭포 일원	완주군		위봉산	권삼득		2021
부안 우금바위 일원	부안군		우금산	원효대사, 의상대사	강세황의 '우금암도'	2021
고창 병바위 일원	고창군		술병이 거꾸로 꽂힌 모양 같음	변성온, 변성진		2021
삼남대로 갈재	장성군		'갈대(蘆)'라는 기생의 이름	고려 현종		2021
삼남대로 누릿재	강진군		고개가 누런색을 띠	정약용		2021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여주시		암자가 해를 향하고 있음	원효대사		2022

출처 : 두산백과, 문화재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등 각종 자료.



그림 1.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

출처 :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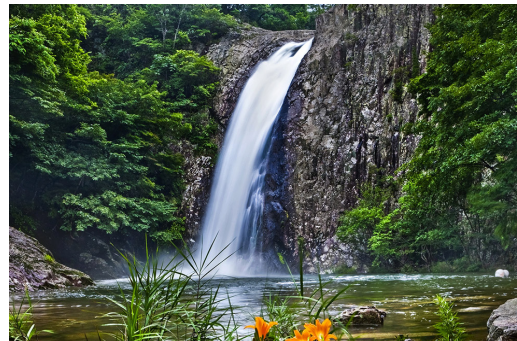


그림 2. 부안 직소폭포

출처 : 전북서해안 국가지질공원

승이 남해안과 서해안 연안의 순천, 완도, 여수, 진도, 해남, 강진, 부안, 고창 등과 광주광역시 주변인 담양, 화순, 장성 등에 주로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덕유산 무주구천동을 끼고 있는 무주군과 지리산 서남쪽의 구례군에 각각 2곳의 명승이 분포한다.

한편 형성 시기가 명확한 호남지방의 명승 16곳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삼국시대 2곳, 통일신라시대 3곳, 조선시대 전기 6곳, 조선시대 후기 5곳으로 나타나 약 70%의 명승이 조선시대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형성 시기가 알려진 중부지방의 명승 12곳 가운데 조선시대 이전의 명승이 9곳이라는 사실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호남지방의 명승을 명칭의 유래 근거에 따라 구분해 보면 지형·지물적 특징에서 유래된 명칭이 14곳으로 가장 많고, 특정 인물이 명명하였거나 특정한 인물을 기리기 위한 명칭이 11곳, 명승 주변의 지형·지물에서 비롯된 명칭이 6곳, 각종 전설과 관련된 명칭이 4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문헌에서 비롯된 명칭도 2곳이 있다.

그리고 호남지방의 명승과 관련된 주요 인물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인물로는 의조화상, 인도 승려 연기, 도선국사, 혜린대사, 보조국사, 대각국사, 연기조사, 의상대사, 원효대사, 인도 승려 지공대사 등이 있으며, 고려시대 인물로는 진각국사, 김극기, 현종 등이 있다. 또한 명승과 관련된 조선시대 인물로는 조진충, 조재호, 황희, 정철, 신감, 윤선도, 양산보, 송병선, 김성원, 임억령, 고경명, 오이정, 각성, 성능, 서산대사, 초의선사, 허련, 남언기, 민주현, 김후, 김운제, 송순, 이담로, 정약용, 초의선사, 이시현, 권삼득, 변성온, 변성진 등 다수가 있다. 이와 함께 호남지방의 명승과 관련된 해방 이후의 인물로는 주한 프랑스 대사 피에르 랑디(Landy, P.), 허건 등이 있다. 호남지방의 명승과 가장 많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인물은 도선국사이다. 도선국사는 지리산 화엄사, 조계산 송광사와 선암사, 구례 오산 사성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인도 승려 연기, 인도 승려 지공대사, 주한 프랑스 대사 피에르 랑디 등 호남지방의 명승과 관련된 외국인이 3명이나 있다는 점이다.

호남지방의 명승과 관련된 그림은 매우 적은 편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묵호(墨豪) 전충효(?-?)의 '석정처사유거도(石亭處士幽居圖)'와 표암 강세황(1713-1791)의 '우금암도(禹金巖圖)' 등이 있다. '석정처사유거도'는 17세기 후반 전충효가 김한명이 사는 화

순군 이서면 보산리 석정 마을을 그린 그림으로 적벽강의 물줄기와 양 옆의 절벽이 잘 나타나 있다. '우금암도'는 강세황이 1770년대 초 부안 일대를 유람하면서 그린 그림으로 직소폭포, 우금바위 등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또한 서하당(棲霞堂) 김성원(1525-1597)이 1590년에 그린 '성산계류탁열도(星山溪柳濯熱圖)'에는 식영정과 환벽당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끝으로 호남지방 명승의 지정 시기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명승이 200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호남지방의 명승 39곳 중 완도 정도리 구계등과 여수 상백도와 하백도 일원을 제외한 37곳의 명승이 2000년 이후에 지정되었다. 특히 2008년에는 광한루원, 담양 소쇄원, 순천만 등 5곳, 2009년에는 무주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담양 식영정 일원, 지리산 화엄사 일원 등 9곳, 2021년에는 장흥 천관산, 부안 우금바위 일원, 삼남대로 갈재 등 7곳이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V. 내용 요약 및 결론

최근 명승의 지정은 크게 늘어났지만 명승의 체계적인 분류와 효율적인 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자는 우리나라의 명승 가운데 호남지방에 분포하는 39곳의 명승을 새로운 시각에서 유형별로 분류·정리하고, 이들의 지역적 분포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명승의 연구범위를 전국으로 넓혀 보다 객관적인 명승의 유형 분류 기준을 확립하려고 한다.

명승 지정기준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명확히 제시된 1964년 2월 이후, 명승 지정기준은 오랫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07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명승 지정기준은 큰 변화를 겪었다. 문화재청은 2007년 8월 명승 지정기준을 개정하여 명승을 크게 자연명승과 역사문화명승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유형의 역사문화명승을 명승 지정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문화재청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명승 지정기준을 또 다시 대폭 개정하여, 과거 지정기준과 유형별 분류가 혼재되어 있던 것을 지정기준 제시 후 유형별 분류로 바꾸었다. 이와 함께 명승의 유형으로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복합명승을 제안하였다.

명승의 지정은 그 가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정하

는 것이기 때문에 명승의 지정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명승을 지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문화재청이 지정한 우리나라의 명승 총 131곳 중 자연명승으로 분류된 곳은 41곳, 역사문화명승으로 분류된 곳은 90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청의 명승 분류에는 자연명승이 역사문화명승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반대로 역사문화명승이 자연명승으로 잘못 분류된 사례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명승의 유형 분류와 관련해 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문화재청이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대폭 개정하여 명승의 유형을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복합명승으로 구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이러한 명승의 유형 분류 방식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2022년 12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우리나라의 명승 131개 중 복합명승으로 분류된 명승은 단 한 곳도 없는데, 이는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만 개정하였을 뿐 이를 업무에 적용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일련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독자적인 명승 분류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기준은 필자가 지난 2019년과 2022년의 연구를 통해 제안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먼저 자연명승을 크게 7개 범주(산지지형, 하천지형, 해안지형, 카르스트지형, 화산지형, 조망경관, 동식물 서식지)로 중분류하고, 이를 다시 소지형 단위로 분류하였다. 역사문화명승도 크게 4개 범주(전통 조경경관, 전통 산업경관, 전통 교통경관, 역사유적)로 중분류하고, 이를 다시 소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명승적 성격과 역사문화명승적 성격을 두루 갖추고 있고, 그 비중이 대등한 경우에는 복합명승으로 분류하였다.

새로운 명승 분류 기준에 따라 호남지방의 명승 39곳을 대분류하면 자연명승이 20곳, 역사문화명승이 15곳, 복합명승이 4곳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중분류하면 자연명승은 산지지형이 6곳, 하천지형이 4곳, 해안지형이 4곳, 조망경관이 4곳, 화산지형이 2곳으로 나뉘고, 역사문화명승은 전통 조경경관이 10곳, 역사유적이 3곳, 전통 교통경관이 2곳으로 나뉜다.

반면 문화재청은 호남지방의 명승을 자연명승 14곳, 역사문화명승 25곳으로 분류하였다. 자연명승에는 해남 달마산 미항사 일원, 지리산 화엄사 일원, 두륜산 대흥사 일원 등 역사문화명승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곳이 여럿 포

함되었고, 역사문화명승에는 완도 정도리 구계등, 여수 상백도와 하백도 일원, 진안 마이산,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무등산 구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등 누가 보아도 자연명승에 해당하는 곳이 다수 포함되었다.

필자가 제안한 새로운 명승 분류 기준은 명승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보다 세밀한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역사문화명승은 최근 지정 확대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다양한 유형의 역사문화명승이 추가 지정되고 있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보다 역사문화명승의 지정 건수와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역사문화명승의 지정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호남지방의 명승은 소재지, 형성 시기, 명칭의 유래 근거, 주요 관련 인물 및 그림, 지정 시기 등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해볼 수 있다. 먼저 명승의 소재지를 보면 호남지방의 명승이 남해안과 서해안 연안의 순천, 완도, 진도, 해남, 강진, 부안, 고창 등과 광주광역시 주변인 담양, 화순, 장성 등에 주로 분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형성 시기가 명확한 호남지방의 명승 16곳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삼국시대 2곳, 통일신라시대 3곳, 조선시대 전기 6곳, 조선시대 후기 5곳으로 나타나 약 70%의 명승이 조선시대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호남지방의 명승을 명칭의 유래 근거에 따라 구분해보면 지형·지물적 특징에서 유래된 명칭이 14곳으로 가장 많고, 특정 인물이 명명하였거나 특정한 인물을 기리기 위한 명칭이 11곳, 명승 주변의 지형·지물에서 비롯된 명칭이 6곳, 각종 전설과 관련된 명칭이 4곳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호남지방의 명승과 관련된 주요 인물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인물이 28명으로 가장 많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호남지방의 명승과 관련된 외국인 3명이나 있다는 점이다. 호남지방의 명승과 관련된 그림은 매우 적은 편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목호 진충효의 '석정처사유거도', 표암 강세황의 '우금암도', 서하당 김성원의 '성산계류탁월도' 등이 있다.

끝으로 호남지방 명승의 지정 시기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명승이 200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호남지방의 명승 39곳 중 완도 정도리 구계등과 여수 상백도와 하백도 일원을 제외한 37곳의 명승이 2000년 이후에 지정되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2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입니다. 연구비를 지원한 강원대학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명승정책 활성화, 그 후 5년 (2006~2010),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천연기념물센터).

김계식, 2009, “명승 지정의 현황과 정책 방향” 국제학술 심포지엄: 명승의 현황과 전망,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김대열, 2008, “우리나라 명승 지정 확대방안 연구: 한국과 일본 명승자원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한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창규, 2013,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개념의 재조명” 법과 정책연구, 13(3), 1211-1246.

김학범, 2009, “한국 명승의 현주소와 과제” 국제학술 심포지엄: 명승의 현황과 전망,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2003, 「천연기념물 백서」, 서울: 문화재청.

신상섭, 2011, “명승 자원 유형과 옛 기록으로 본 팔경, 동천, 구곡의 연관성” 국제 워크숍: 한·중·일 명승 보존과 활용 방안, 문화재청.

유영석·전종한·류제현, 2013, “전통 명승의 현재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화천 곡운구곡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학회지, 25(1), 99-113.

이위수, 2009, “한국 명승 현황 및 전망” 국제학술 심포지엄: 명승의 현황과 전망,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이의한, 2019, “중부지방에 분포하는 명승의 유형과 특징: 새로운 명승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4(1), 35-49.

이의한, 2022, “영남지방에 분포하는 명승의 유형과 특징: 새로운 명승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사지리학회지, 32(1), 1-15.

이재근, 2009, “명승 개념 및 분류 체계 논의” 국제학술 심포지엄: 명승의 현황과 전망,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장은미·박경, 2018, “위치자료와 통계를 이용한 우리나라 명승과 구곡팔경 관계 고찰” 한국지도학회지, 18(2), 39-52.

전종한, 2013,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본 국가 유산의 가치 평가와 범주화 연구: 문화재청 지정 국가 ‘명승’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6), 929-943.

전종한, 2014, “국가 유산 ‘명승’의 조사 기록을 위한 가치 범주의 구상: ‘문화 경관으로서의 명승’의 관점에서” 대한지리학회지, 49(4), 563-584.

정치영·박정혜·김지현, 2016, 「조선의 명승」,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두산백과, <https://www.doopedia.co.kr>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www.geopark.gwangju.go.kr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청, www.cha.go.kr

전북서해안 국가지질공원, www.jwcgeopark.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교신 : 이의한,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euihan@kangwon.ac.kr)

Correspondence: Euihan Le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daehakgil 1, Chuncheon, 24341, Korea (Email: euihan@kangwon.ac.kr)

투고접수일: 2023년 1월 16일
심사완료일: 2023년 3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14일